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우리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회〉

편집자주 : 지난 8월 12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에 추진해온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되었는데 향후 각국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94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전망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아직까지 북미 3국이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큰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상공부, 본회의 자료를 통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것이다.

1. 머리말

금년 8월 12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상호 고용 및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합의하여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상품의 교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투자, 금융을 포괄 하면서 상품의 관세장벽철폐를 주요내용으로 광역의 의미에서의 자유무역 협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EC 통합, 구소련 및 동구 등 공산권의 붕괴, 일본의 경제력 급신장 등 세계 경제질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경제력 통합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멕시코의 인력과 자원 등 3개국의 상호보완성을 갖추어 역내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 및 성장촉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 내용과 우리 경제 및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 및 본회의 대응방향과 활동 계획을 다루어 업계의 대응전략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경제 전반적인 영향

협정문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나, 그동안 수집한 현지 정보와 이번 발표된 협정문의 골격에 따라 대체적인 파급 영향은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연구원 및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NA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보면 첫째, 한국과 멕시코간의 대미 수출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대미수출 40대 상품중 공통품

목수는 21개에 이르고 있고 이들 품목의 수출 금액은 우리나라가 95억달러, 멕시코가 132억 달러를 기록하여 각각 총대미수출의 55.9%, 4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인바, 특히 현재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의류 분야라든지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저가 가전, 자동차부품과 같은 저기술 산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존에 미국이 무관세내지 저관세(0.01%이하)를 부과하는 분야나 첨단기술분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멕시코에 대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기술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 3국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북미 3국은 미국의 자본·기술, 캐나다의 자원·기술, 멕시코의 자원·인력 등 부존자원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기술이전 촉진으로 이들 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셋째, NAFTA 타결이 EC통합과 함께 전세계적인 지역 블록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지역은 인구 3억 7천만명, GNP 6조 2,450억 달러 등 경제규모가 EC를 능가하는 세계 제1의 경제블록이 되었는데 머지 않아 칠레 등 남미국가까지도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자극받아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이 형성됨으로써 세계경제가 3개 블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3대 경제블록화는 우리경제로 보아서는 블록간 힘겨루기의 불안정성, 일본의 주도적 위치에서 오는 불안 등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부정적인 면은 주로 중장기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바, NA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우선 교역에 있어서 멕시코의 대미시장 의존도가 이미 70%수준에 달하는 등

멕시코의 추가적인 미국시장 진출여력은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특히, 이번 협정의 주요골자인 관세무세화를 보면 이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4%수준이고 그것도 최장 15년에 걸쳐 무세화되는 것이므로 일부 고관세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NAFTA 타결에 대비하여 마킬라도라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기업의 대멕시코 투자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번 NAFTA 타결로 새로이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면도 있다. 다만 원산지 규정 강화로 역외국의 우회수출이 방지 됨에 따라 조립산업의 대멕시코 진출이 어려워지는 반면,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대멕시코 투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NAFTA 타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기업들도 그동안 NAFTA 타결에 대비해 현지공장을 새로이 건설한다든지 미국의 조립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한다든지 그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으므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으로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전·자동차 등 우리업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NAFTA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역내 교역 촉진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시장 통합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북미지역의 시장이 확대되고 동일한 표준 등의 사용에 따라 원활한 수출이 가능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남미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3. 우리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전자산업관련 주요타결내용

○ 관세철폐

멕시코로 수출되는 미국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의 약 65%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즉각 혹은 향후 5년내에 적용

(5-10년내에 모든 관세 철폐)

○ 통신시장 개방

멕시코는 60억 \$에 달하는 자국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공중전화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조치에 대해 NAFTA국가에 한해 이를 오는 '95년 7월까지 철폐

○ 투자확대

멕시코는 자국산부품 사용의무규정을 폐지, 멕시코내에서의 미국기업은 멕시코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멕시코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수출의 무규정 철폐

(현재 현지투자외국업체는 50%이상 수출의무가 부여됨,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감면 혜택)

○ 지적재산권 보호

기존의 어떠한 쌍무협정이나 다자간 협상보다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멕시코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15년 → 20년으로 연장하여 선진국수준을 유지할 전망)

○ 원산지규정 (LOCAL CONTENT) 강화

역외국산 재료 및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그 제품이 북미지역에서 충분히 변형되어 관세 분류표상 변화가 생기면 북미산으로 간주·특정한 경우 일정비율 만큼 북미산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목에 따라 40~62.5%정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예)CTV의 경우 현재 현지조달률 25~30%임. C-TV(CPT), 컴퓨터(Motherboard) 현지 부품을 사용하여야 북미산으로 인정 등)

나. 부문별 영향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

업종	한국		멕시코		캐나다	
	1989	1991	1989	1991	1989	1991
가전산업	12.6	→ 9.9	8.2	→ 9.7	-	-
반도체산업	15.2	→ 13.6	2.9	→ 2.5	7.3	→ 10.8
컴퓨터산업	6.1	→ 4.7	3.0	→ 2.3	6.9	→ 8.2
통신장비산업	7.5	→ 4.9	5.0	→ 4.5	9.2	→ 11.9

1) 가전산업

우리나라의 대미가전제품 수출은 '89년 21억 달러를 정점으로하여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미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멕시코는 '87년 이후 물가안정 및 임금의 동결을 이룩하여 멕시코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 규모가 '91년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되었는데 특히, 금번 NAFTA 체결로 멕시코의 컬러TV 라디오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컬러 TV

'91년중 미국이 수입한 컬러TV의 51.7%가 멕시코 제품으로 미국의 수입컬러TV 2종중 1대는 멕시코제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가전업체와 우리 가전 3사가 멕시코로 컬러TV공장을 이전하여 대미 컬러TV 수출을 확대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대부분의 컬러TV는 실제로는 일본 또는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컬러TV중 가격이 높은 18인치 이상의 대형 컬러TV가 차지하는 비중이 '89년의 12.1%에서 '91년에는 34.1%로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도 이미 고가의 컬러TV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 미국이 컬러TV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5%가 금번 NAFTA협정으로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일시에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 등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번 체결된 NAFTA 협정에서는 역내에서 생산된 CRT(Cathode Ray Tube)가 장착된 컬러TV에 한해 미국의 수입관세가 면제된다는 원산지규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멕시코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의 가전 3사는 향후 멕시코에 CRT공장을 건설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승인요건이었던 수출의 무 이행요건이 NAFTA 체결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진출한 우리 가전 3사의 제품이 향후 멕시코 내수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NAFTA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라디오

멕시코는 미국시장에 주로 자동차용 라디오를 수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가정용 라디오, 일반 라디오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 경합관계가 별로 없으며 미국은 많은 라디오제품에 대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산 라디오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용 라디오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멕시코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반도체산업

'91년중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7.8억 달러인데 반해 멕시코는 3.3억 달러로서 우리의 1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제품의 95%가 집적회로제품인데 반해 멕시코는 50%가 개별소자제품으로 양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제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예상되지 않는다.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단가가 전반적으로 멕시코산 및 캐나다산에 비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전히 대미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많은 반도체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1.0~4.2%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NAFTA로 인해 멕시코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경우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현재까지 멕시코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NAFTA체결로 인해 선진국 기업들의 대 멕시코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멕시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컴퓨터산업

'91년중 우리나라 대미 컴퓨터 수출액은 11.8억달러인데 반해 멕시코는 5.9억달러로서 우리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많은 컴퓨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NAFTA 체결에 따라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경우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현재 멕시코 컴퓨터산업의 생산 및 고용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멕시코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NAFTA협정에 따라 역내에서 생산된 주집적회로(MAIN Circuitry)와 회로기판이 장착된 컴퓨터로서 동 컴퓨터를 만드는데 소요된 인건비, 역내 생산부품 등의 비용합계가 총 원가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해 관세면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컴퓨터업체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통신장비산업

'91년중 우리나라의 대미 통신장비 수출액은 3.8억달러, 멕시코는 3.5억달러로서 수출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또한, 우리 통신장비 중 주요 대미 수출품목으로는 유·무선 전화기, 자동응답기, 교환기, 팩시밀리 등이 있으며 멕시코도 이들 제품을 상당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가 중·저가 제품의 대미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대미 수출제품은 점차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분류표상의 통신장비제품 48개 품목(8단위 기준)에 대해 3.7~8.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출제품의 6.5%만

5) NA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대상 산 입	주요경쟁 품 목 (SITC번호)	경 정 대상국	현재 우리 나라와의 경쟁정도	NAFTA체결에 따른 대미 시장에서의 경쟁력변화	
				전 망	근 거
가 전	컬러TV	멕시코	멕시코가 상당히우위	·5년내 우 리나라의 경쟁력 상실우려	·컬러TV 부문에서 는 대형TV의 경우 멕시코가 미국 수입 시장의 80%를 점하 고 있으며, 카리다 오 부문에서도 멕시 코의 수입시장 점유 율은 23%임.
	라디오	멕시코	우리가 다소 우위		
반도체	8521 854110000	멕시코 캐나다	우리가 우위	·5년내 거의 비슷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낮은 수준이며,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나타내었음. ·동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매우 커 캐 나다와 멕시코가 안정적인 대미수출 관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 시켜나감으로써 우 리의 경쟁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컴퓨터	847310000	멕시코		
통신기기	68157 68158 6816330 685	멕시코 캐나다	우리가 멕시코보다 우위. 캐 나디에 열위	·5년내- 거의 비슷 캐나다 보다 열위	·멕시코와 미국과 하청생산 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캐 나다 통신기기 산업 의 경쟁력이 우리보 다 높아 저가제품에 대한 멕시코와의 경 쟁력이 가속화될 전망

이 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NAFTA 체결에 따라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폐지될 경우 우리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현재 멕시코 통신장비산업의 생산 및 고용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놓여 있으며 기술수준 역시 우리 보다는 낮다. 그러나, NAFTA에 의한 멕시코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외국기술과 자본의 대 멕시코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멕시코 통신기기산업이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생산성향상을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우리의 대미 통신장비 제품 수출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

한편, 약 60억달러에 이르는 멕시코의 통신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4.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

가. 통상외교적 대응

NAFTA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외교차원의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첫째, 미국과의 시장확대 및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에 기합의한 기술협력 창구의 지정, 양국정부가 공동주관하는 기술박람회(Techno Fair)의 '93년 상반기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멕시코의 현지투자 확대를 위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93년 2월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셋째, GATT, UR,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해서 NAFTA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억제하고 역외국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NAFTA가 GATT 규범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나. 미주지역 투자진출 확대 유도

NAFTA는 미국의 미주지역 통합을 위한 전 단계이므로 미주지역 투자는 북미지역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미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지금까지 의류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 현지투자하여 미국에 수출중이며, 가전 3사는 멕시코, 자동차는 캐나다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중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외투자 진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미주지역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민·관으로 구성된 중남미 투자사절단을 하반기중 파견하여 북미 및 중남미 투자여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방안도 현지 부품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완제품 조립공장의 투자보다는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이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산업기술협력을 적극추진하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는 멕시코의 임금수준이 대폭 올라갈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임금수준보다는 장기적인 임금추세, 원료 및 부품조달 등을 감안하여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시장개척 활동의 강화

북미시장은 전세계교역의 18%를 점유하는 시장으로서 세계적인 공산품들의 경쟁시장(Tes t Market)이고,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시장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미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88: 35.3% → '91: 25.8%)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한국의 가장

큰 시장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하였으나, 최근 중국·멕시코 등 후발국에 의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능력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수출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대소비자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즉, 동종업체가 연합하여 소비자 고충처리나 하자물건의 변상, 더 나아가 부품공급 등을 주업무로 하는 A/S전문 서비스망(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A/S센터 등)을 주요도시에 구축해야 하며, 외상거래가 습관화되어 있는 미국소비자들을 상대로 현지진출 기업이나 은행 등을 통한 시장침투효과가 큰 시장이므로 주문생산방식(OEM)이 아닌 제품에 대해 과감한 광고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연간 3백여회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박람회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전문점에서의 참여를 확대하여 미국업체의 소비재 및 산업재의 수요동향 파악에 힘써야 한다.

셋째, 우리상품의 이미지 제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전략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세계일류수준 상품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유통조직에 적극 침투하기 위해 각종 품목별, 지역별 유통조직의 수입상품 구매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수입상과 도매상 등 중간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세분화에 의한 지역별 침투활동을 전개하여, 동부와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지사·상사 활동을 중부 및 동남부 주요 시장권으로 확산시키고, 50개 주별시장에서의 밀착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시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5. 본회 주요 활동계획

○ NAFTA관련 협상진행 상황 및 세부 타결

내용에 대한 신속한 자료 입수 및 대업체 홍보

- 본회 산업별협의회를 통한 자료 배포 및 홍보

- 전자진흥지 등을 통한 업체 홍보

- 본회 직원에 대한 설명회 개최

- NAFTA체결의 의미와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 NAFTA관련 타결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규정, 해외투자, 지적소유권 관련 내용 등

- 전자산업의 국제화·현지화(Globalization·Localization)에 따른 부문별·품목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 NAFTA타결에 따른 부문별·품목별 대응방안 조사분석

- 부문별·품목별 영향 및 업체별 대응현황

- 일본 등 현지진출 업체 및 생산현황 등

- 일본, EC 등의 현지진출 전략 및 대응현황

○ 국내 전자업체의 대멕시코 투자확대 지원

-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자본 및 기술집약 제품 개발

- 품질, A/S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차별화

○ 업체간 해외진출 공조체제 유도
본회 협의회 등을 통한 공동협력 체제기

반 구축

- 진출 기업간 공조체제 지원

- 해외에서의 대기업간 상호 부품 SWAP, 공동생산, 공동투자 등의 공조체제 유도

-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조체제

- 현지 부품조달률(Local Contents)충족을 위한 생산 대기업 및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현지 동반진출 적극 유도
-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트메이커의 공동구매 보장 등

예) C-TV(CPT, FBT, PCB), 컴퓨터(M

other Board, Display Panel)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를 위한 해외 공동광고 및 홍보

○ 현지 투자조사단 파견 및 참가

- 전자산업의 현지 투자환경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파견

- 지역별(NAFTAM, EC, 중남미, 동남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역의 정보수집 및 현지실사

- 효율적인 해외투자 진출 등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해외거점간 유기적 체제기반 구축

- 원자재 부품을 중심으로 멕시코와 수직적 산업협력 모색

○ 업계 애로사항 조사 및 대정부 건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진출시 해당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예) 해외투자 세액제도 개선

- 현재 해외투자금액의 손비인정을 20%→30%로 확대

- 국내부품을 사용한 해외 생산제품의 국내 역수입시 관세혜택 제공 (단, 중소기업 고 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역수입은 제한)

- 해외투자 권장품목 및 규제품목 선정 고시
• 효율적인 해외진출로 산업공동화 사전 예방

NAFTA지역 전자제품 수출현황 [단위:백만\$, %]

구 분	'91	'92.6 (누계)		비 고	
		증가율	증가율		
전자총수출(A)	19,334	12.3	9,889	5.5	
NAFTA(B)	7,065	11.5	3,533	7.7	100.0 (92.6 말 기준)
미 국	6,227	10.1	3,095	6.2	(87.6)
캐 나 다	445	23.6	188	-9.2	(5.3)
멕 시 코	393	21.3	250	55.3	(7.1)
가 정 용	2,108	7.0	1,050	15.5	29.7
미 국	1,654	3.6	836	18.8	
캐 나 다	226	20.9	88	-21.2	
멕 시 코	228	22.6	126	34.2	
산 업 용	1,941	3.2	885	2.6	25.1
미 국	1,762	0.8	803	1.9	
캐 나 다	153	28.6	68	5.3	
멕 시 코	26	200.0	14	43.5	
부 품	3,016	21.2	1,598	5.8	45.2
미 국	2,811	21.7	1,456	2.4	
캐 나 다	66	22.2	32	5.4	
멕 시 코	139	11.2	110	89.9	
비 중(B/A)	36.5		35.7		